

丙戌年の 희망, 디지털콘텐츠에 건다

신이 불을 훔쳐간 인간에게 벌을 주기 위해 불행을 가득 채워 보낸 상자를 호기심 많은 판도라가 열어버렸다. 그러자 상자 안에 있던 채워진 불행이 모두 세상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중 필사적으로 지켜낸 것이 희망이다. 불을 훔쳐간 인간의 죄를 불행이라는 벌로 죄 값을 치르게 했으나, 신의 불을 훔친 용기를 보상이라도 하듯 신은 희망이라는 선물을 상자 밑바닥에 깔아줬다. 인간은 행복할 때 희망을 생각하지 못한다. 희망은 즐겁고 행복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서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

丙戌년이 시작됐다. 매년 초마다 하는 낯두리 같지만 올해엔 어떤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지 기대 반 두려움 반이다. 지난해는 경제·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잘나가는 줄만 알았던 영화 제작사의 대표 상당수가 신용불량자라고 하니 다른 중소기업자의 경영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증견 IT 기업이었던 텔슨과 삼보의 추락이나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던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을 생각하면 불을 훔친 대가가 너무나 커 보인다. 그러나 DC라는 희망이 우리와 함께 있다.

지난해 말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를 발간하는 영국 옥스포드대가 '2005년 올해의 단어' 로 팟캐스트(Podcast)를 선정했다. 팟캐스트란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과 애플의 MP3P인 아이팟(iPod)의 합성어로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 방송 등의 디지털 파일을 MP3P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원할 때 DC를 이용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전의 한 해 대표 단어로 선정될 만큼 빠르게 확산됐다.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바뀐 것이다. 소비자는 이제 CD를 사서 음악을 듣지 않는다. 콘텐츠 유통 방법이 컨버전스를 통해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인터넷이 태동되면서 시작했다.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자 쇼핑물이나 전자 서점도 인터넷, 상품 혹은 서적 콘텐츠, 전자 결제 서비스 그리고 오프라인의 운송 배달 시스템이 융합된 결과다.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랜이라고도 불리는 100Mbps급 광 랜(Optical LAN) 가입자가 지난해 9월말 140만명을 돌파했다. 인터넷 영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다양한 영상 애플리케이션이 창출될 것이다. 이미 시범 방송을 개시한 위성파 DMB와 지상파 DMB, 올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될 IPTV와 와이브로 등 소위 통신과 방송의 경계를 허무는 네트워크 컨버전스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제2의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다양화된 디지털 유통 환경은 DC 사업자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신규 디지털 유통 환경에 특화된 콘텐츠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RFID 태그가 부착된 물건을 실세계 공간에 감춰두고 RFID 리더가 탑재된 무선 단말기에 게임 스토리텔링이 포함된 콘텐츠를 내장해 필요한 물건을 찾도록 명령을 내리는 온·오프라인 공간 연동형 게임 콘텐츠, 인터넷의 쇼핑물을 TV로 옮겨 리모콘을 통해 상품 선택·주문·결제 등을 할 수 있는 T커머스, 기존의 교통·여행 콘텐츠에 이동성·실시간성·양방향성 등의 차세대 컴퓨팅 특성을 부여한 TPEG 기반의 DMB용 텔레매틱스 콘텐츠 등 새로운 디지털 유통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들이 丙戌年の 주역으로 떠오를 것이다.

아직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고, 기존 콘텐츠에 익숙한 이용자의 거부감을 거둬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마음껏 펼 수 있는 그라운드가 넓게 펼쳐져 있다. 우리 정보통신 산업은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에 조합시킬 레고들을 그 어느 나라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준비해 왔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온다는 말은 DC 산업에 어울리지 않는다. 겨울에 이미 키워 놓은 싹이 여름의 작열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丙戌年の 희망을 DC 산업에 건다.

글 이창한 기자